

#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配色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양 회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소 황 옥

## 目 次

I. 序 論	V. 結 論
II. 服色의 種類와 象徴性	參考文獻
III.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配色	ABSTRACT
IV. 服飾의 配色에 나타난 象徴性	

## I. 序 論

服飾은 한 사회문화를 대변하는 거울로, 특히服色은 시대, 지역, 종교 등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여러 象徴의 意義를 지녀왔다.

朝鮮의 사회제도는 유교이념에 근거해 확립되었으나 동시에 민족정서 속에 오랜 기간 자리잡아왔던 佛敎와 道敎도 종교적인 면을 비롯 실생활에 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여기에 한민족의 독자적 민간신앙까지 덧붙여져 사상·문화적 흐름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 女服의 配色調和를 현존유물과 그림, 기록 등을 통해 상징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服色에까지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했던 조상의 슬기로운 생활을 재조명하고 현대인에게 우리 옷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 II. 服色의 種類와 象徴性

의복색의 선택 개념은 지리적, 풍토적, 민족적 기질에 따라 嗜好色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대의 예술성에 따른 유행색으로 선호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의복은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때에는 상징이나 권위의 의미로 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朝鮮時代에는 다양한 색이 상징적 관념을 내재하며 사용되었는데, 특히 陰陽五行의 五方色 개념을 바탕으로 한 유교와 도교의 색채관은 服色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陰陽說은 모든 현상을 相生·相反의 두 요소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太極의 움직임에 의해 陰·陽의 分別象이 생기는데 처음의 준비적 태세가 陰이 되며 그 發動이 陽이 되어 陽은 陰을 기본해 動하고 陰은 動을 의지해 靜한다. 陰의 極端이 陽이 되고 陽의 極端이 陰이 되며 靜의 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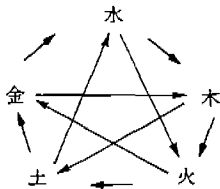
1)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p.34.

動이 되고 動의 極이 靜이 되는데 이같이 太極의 兩面의 作用性を 分별해 말하는 것이 陰陽이다.<sup>2)</sup> 太一思想 역시 色彩觀에 영향을 끼쳤는데, 太一은 兩儀를 낳고 兩儀는 陰陽을 낳는 것으로 萬物은 太一에 의해 만들어져 陰陽에 의해 변화하며<sup>3)</sup> “太一이 있는 곳이 紫宮이다.”<sup>4)</sup>라 하여 紫色이 太一과 연관되어 존귀한 색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五行은 만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일상의 필수기본체가 상징화되었던 것이 陰陽說과 결합해 다섯 종류의 氣를 나타내게 되어, 우주에 偏在하고 充滿한 다섯 가지 活動原[에너지]적인 요소로, 만물의 존재나 작용이 유래하는 바의 것이라고 생각되게 되었다.<sup>5)</sup> 그런데 이런 陰陽五行은 相互 調和에 따라 陰陽의 變化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다분히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표 1〉五行 五元素의 象徴<sup>6)</sup>

分類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 色		靑	赤	黃	白	黑
五 德		木	火	土	金	水
五 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 時		春	夏	季夏	秋	冬
五 常		仁	禮	信	義	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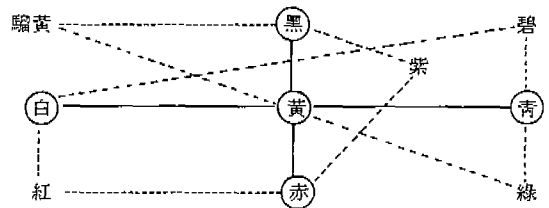


(그림 1) 五行의 相生과 相剋

五行의 五元素는 〈표 1〉처럼 연관된 상징을 이루면서 존재하였으며, 그 五德의 轉換을 比相生과 間相勝으로 보아 각기 五行相生說과 五行相克說로 서로 生하고 勝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같은 五行說을 바탕으로 朝鮮時代의 색채체계가 〈표 2〉처럼 나타났는데 이는 方位를 中央과 東, 西, 南, 北의 五方으로 나눈 후 각기 黃, 靑, 白, 赤, 黑의 五正色을 배치하고 이 사이에 綠, 碧, 紅, 靑黃色, 紫色의 五間色을 五方의 雜色으로 나누었다.<sup>7)</sup>

〈표 2〉五方色과 五間色の 體系<sup>8)</sup>



또 玄纁이나 赤과 같은 두 색의 결합은 붉고 검은 색을 말하기 전에 天地나 男女와 같은 순수한 철학적 개념을 나타냈고, 이는 가시적 색채보다 철학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sup>9)</sup> 따라서 朝鮮服色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色彩觀의 관념적 상징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색채를 명도나 채도 등이 아닌 계열별 상징성에 의의를 두고 구분하여 배색조화를 고찰하였다.

### 1. 靑色系列

靑色은 말 그대로 푸른 색을 말한다. 服色에 나타나는 靑色系列 색채로는 縑[玉色·靑白色], 黓

2)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동방문화, 1992. p.45.

3) 太一出兩儀 兩儀出陰陽 萬物所出 造於太一 化陰陽 《呂氏春秋》 권 5. 大樂.

4) 紫宮者太一之居也 《淮南子》 天文訓

5) 戶川芳郎, 蜂屋那夫, 溝口雄三. 조 성을, 이동철 역. 《유교사》 이론과 실천사, 1990. pp.63~64.

6) 김양희,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배색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8. 참조

7)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조형논총 3, 1983. p.164.

8) 정시화, 前掲書 p.164

9) 원미량, 《청색을 통해 본 중국 개념색의 문제》 공간 제 102호, 1975. pp.91~92.

[淺青色·얕은 靑色], 연두색, 草綠色, 일람색, 南松色[수박색], 洋藍色, 반물색[감색·검은 빛을 띤 짙은 남빛], 玉色, 靑色, 洋草綠色, 洋玉色, 藍色, 柳綠色[버드나무 같은 조금 충충한 녹색], 鵝靑色[검정에 가까운 靑色으로 일명 검푸른색·청회색·갈매색·반물색과 같은 색], 品藍色[쪽빛 또는 갈매색], 연초록색, 柳靑色, 팔유청색, 鴨頭綠色 [꽃빛보다는 진하고 아청보다는 흐린 초록색] 등이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朝鮮時代에는 綠色이 거의 靑色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五方色과 五間色에서는 靑色과 綠色이 엄연히 구분되지만 朝鮮時代에는 ‘푸르다’라는 색채어가 草木과 하늘의 빛을 나타내는 색<sup>10)</sup>으로 널리 쓰여서 실생활에서는 ‘푸른 나무, 푸른 하늘’처럼 혼용되기도 했으므로, 服色에서도 綠色은 靑色系列로 분류되어 상징과 配色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靑은 陰陽에서는 赤에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陰의 색으로 사용되며, 五行에서는 태양이 솟는 東方을 의미하는 색으로, 계절로는 만물이 소생하는 春과 木을 뜻하는데 이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성장의 기점을 상징한다. 그런데 한반도가 동쪽에 자리잡고 있어 우리 민족이 東夷族이라 불리웠음을 볼 때, 靑色이 한민족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쓰여서 우리 나라를 가리켜 靑丘라 이르는 등 민족적으로 오랜기간 靑色을 선호하고 애용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2. 赤色 系列

赤色은 ‘붉다’라는 의미로 朝鮮時代에는 한자로 赤, 紅, 丹이 대표적으로 쓰였는데 한글로는 모두 ‘붉다’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풀이되었다.<sup>11)</sup>

服色에 나타난 붉은 색으로는 纁[朱보다는 옅으며 黃과 赤을 겸한 색], 緋[피빛같은 진한 붉은 색], 絳[大赤色·진한 赤色], 緗[淺絳·분홍빛], 眞紅色, 眞粉紅色, 紫赤色[붉은보라], 紅色, 大紅色, 靑[紫色을 띤 赤黃色], 黑紅, 牧丹紅 등이 있다.

紫色은 용도나 금제의 정도가 엄격해 왕의 龍袍, 王妃의 衣에 한해 쓰였는데 五間色인 紫色이 이렇게 귀한 색으로 여겨진 데에는 ‘太一’의 사상이 발생하여 그 개념이 새로워진 것에 원인이 있었다.<sup>12)</sup> 또 赤色은 朝鮮王朝의 상징색으로 왕이나 세자의 복색 등에 제한되어 쓰였는데, 이는 五行에 의해 黃色이 天子의 색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를 피하여 赤色을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赤은 陰陽上 陽으로 생물의 자람과 운동을, 五行上은 南方과 火를 의미해 따뜻함, 활동, 여름과 장기로는 심장을 나타냈다. 한복 옷고름에 紫色이 특히 많이 쓰였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血色과 심장,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위치하는 고름에 애용된 것이 아닌가 한다. 巫俗에서는 赤色에 때때로 黃色까지를 포함해 赤, 紅, 朱, 黃의 총칭<sup>13)</sup>으로 보기도 했으며 赤色系統의 색을 符籍 등 귀신을 쫓는데 이용하였다.

## 3. 黃色 系列

黃色은 ‘누르다’라고 朝鮮時代에 표현되며 한자어 黃으로 대표되어 한자어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한글로 쓰이기도 하지만 용법상으로 보아서는 추상적인 색채로 쓰였다.<sup>14)</sup> 服色에는 深黃色, 柳黃色, 土黃色, 明黃色, 紅黃色, 明金色, 微黃色, 純黃色, 金黃色, 多黃色, 眞黃色, 松花色, 頭綠色, 黃色 [황금색], 淺黃色[얕은 黃色], 금향색[어두운 노

10) 김성대. <조선시대의 색채의 날말발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7. p.136.

11) 김성대. 前揭書. p.130.

12) 원미향. 前揭書. p.92.

13) 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p.90

14) 김성대. 前揭書. p.134.

랑색], 鵝黃色[거위새끼의 깃털색같은 노랗고 고운 색] 등이 쓰였다.

黃은 陰陽으로는 中性, 五行으로는 中央-土를 상징해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어 天子의 상징색으로 사용되었다. 또 농경사회에서는 토인 糞이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시에, 만물의 중앙에서 그 중립성을 잃지 않아 중용의 덕을 높이 평가했던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더욱 선호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민속에서는 糞이 赤과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듯 赤色系列 색채와 같은 용도-귀신퇴치, 질병예방 등-로 많이 쓰였음을 금줄이나 黃土의 사용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黃色의 사용에는 五行的 상징성과 함께, 시각적인 주목도가 높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 때 黃土라는 것이 다른 장소에서 가져온 신선한 붉은 흙이라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하면 개념상 赤色과 함께 신중한 해석이 따라야 한다.

#### 4. 白色系列

白은 우리 말로 ‘희다’라는 뜻으로 朝鮮時代에는 ‘히다’라고 표기되었으며<sup>15)</sup> 한자어로는 白, 素, 雲白, 縞, 黻白, 純白, 白銅色 등으로 나타났다.<sup>16)</sup> 白色은 韓民族이 ‘白衣民族’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이 사용된 服色인데 그 原因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 주장이 있었다. 白衣風習 요인으로 이 명희<sup>17)</sup>

는 원시종교, 자연환경, 고가의 염료, 유교영향 등을, 금기숙<sup>18)</sup>은 韓民族의 미의식 등을 제시하였으며, 김영숙<sup>19)</sup>은 朝鮮時代에 白衣가 陰陽五行思想, 喪服의 색, 班序의 신분구별, 부유층의 수입품 선호방지 등의 이유로 금지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白色은 陰陽上 黑色과 함께 陰에 해당하는 것으로 吉禮보다는 凶禮때에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服色禁制를 통해 白色이 원래 길하지 않은 색<sup>20)</sup>이며, 喪服의 색이 素色이었다는 점 등의 상징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또 五行上으로는 金-秋-西로 만물이 위축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조선은 東이라 木-靑 상징으로 白은 金剋木의 색이니 木德을 숭상하는 조선에서는 착용하지 않음이 옳다는 주장이 있었다.<sup>21)</sup>

한편 白色은 청정과 순결, 광명의 표상으로 태양의 색이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어 아이의 첫돌전까지는 不正을 쫓는 의미에서 白衣만을 입히는 풍습도 있었다.

#### 5. 黑色系列

黑色系列은 검은색으로 대표되며 漢字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 한글로 풀어 쓴 用例가 많던 추상적인 색으로<sup>22)</sup> 黑色系列 색채로는 黑, 緇[黑·검정], 玄[검정·하늘의 검은 빛], 淡黑 등이 있었다.

黑은 陰陽에서는 白과 함께 陰色으로 쓰이며, 五行에서는 北方-水-冬을 나타내는데 이는 黑色이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소생을 상징하며

15) 김성대. 前掲書, p.125.

16) 김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p.30.

17) 이명희. <한민족의 백의풍습에 영향을 준 동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60.

18)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19) 김영숙. 前掲書, p.45.

20) 세종 11년에는 職事가 있는 人員의 白衣着用을 금했고, 19년에는 白色이 吉色이 아니라 하여 금했다.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1)> 교문사, 1982. p.159, p.202.

21) 영조는 모든 계층에 吉服인 靑衣를 숭상하도록 교시하여 白衣를 금했는데, 조선은 東方이라 여겨 靑衣를 입을 것인지 혹은 有始有終을 위하여 白衣를 입었을 것인지 하면서 거듭 白衣를 금하였다. 유 회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p.245.

22) 김성대. 前掲書, p.128.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하고 있음을 말하나, 論語에서 冠자의 복식에 대해 말한 것<sup>23)</sup>을 보아 이를 吉色으로 여긴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황제의 上衣는 乾, 下衣는 坤으로 각기 玄인 黑, 黃을 사용했기 때문에 黃色과 같은 이유로 黑色의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黑이 北과 겨울을 상징해 만물의 쇠퇴를 뜻할 수도 있기에 금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외 古代 喪服制度가 黑色이었던 것 역시 白色과 비슷한 논리에 의해 금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Ⅲ.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配色

색의 효과는 심리적·생리적으로 調和를 이룰 때 나타나는데 이 調和는 색채가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색채와 대비될 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균형미를 이루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색끼리의 配色關係는 인접해 있는 색과의 關係에서 나타나게 되어 한복에서는 上衣와 下衣의 配色, 같은 의복에서도 장식색 또는 장신구와의 配色, 안감과 겹감의 配色 調和를 찾아볼 수 있다.<sup>24)</sup>

朝鮮時代에는 이러한 配色調和가 미적측면뿐 아니라 상징적 측면에서도 중요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는 系列別 配色에 의미를 두고 五方色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上衣와 下衣의 配色

본래 한복은 위·아래가 다른 색상이 한 벌을 이루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同一色의 한 벌 개념은 근래에 들어 생겨난 것이며, 그 예로 黃衣紅裳이나 綠衣紅裳 등의 風習이 지금도 남아있다.

#### 1) 宮女의 日常服 上·下衣 配色

궁녀복은 1896年 고종의 연호개정과 함께 색채 변화가 있었는데 선행연구<sup>25)</sup>를 바탕으로 이를 계열별로 정리하면 上·下衣에 黃-赤, 靑-赤, 靑-靑 系列 配色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표 3-1〉 宮女服의 上·下衣 配色

구분	의복	상의(上衣)	하의(下衣)
생각시	1896년 전	황	적
	1986년 후	청 적	적 청
일반 내인	1896년 전	황	적
	1896년 후	청	청
명절 복식	정월초하루	청	청
	동지	적	청

#### 2) 嘉禮圖鑑儀軌圖에 나타난 女子 服色

嘉禮圖鑑儀軌에는 嘉禮班次圖가 수록되어 당시 服色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례반차도의 연구<sup>26)</sup>를 참고, 내용과 그림을 통해 騎行人과 步行人의 上·下衣 配色을 알아보았다.

騎行人 중 상궁, 시녀 등의 기행내인은 前記 嘉禮班次圖에서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나 후기



(그림 2) 嘉禮圖鑑儀軌 行列圖 (부분)  
(출처 -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23) “검은 옷에는 양갓옷[緇衣羔裘], 양갓옷과 검은 관으로는 조상을 하지 않았다. [羔裘玄冠 不以弔]”. 論語 第十 鄉黨篇 참고.

24) 김영자. 前掲書. p.83.

25)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pp.47~49.

26) 김정진. <조선시대 가례도감 의례에 나타난 반차도의 구조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p. 21~46, pp.56~64.

에는 상궁은 원삼, 시녀는 장삼을 입고 있으며 의녀는 거의 綠色저고리에 黃色치마<sup>27)</sup>이다. 이들의 服色을 五方色 系列로 나누어보면 靑-黃의 配色이 많은데 이는 조사 대상이 儀禮服 성격이 강한 옷들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3-2〉 騎行人 上·下衣의 系列別 配色

하의 \ 상의	靑	적	황	계
靑	22	0	2	24
적	22	0	0	22
황	122	2	4	128
백	18	0	0	18
계	184	2	6	192

〈표 3-3〉 步行人 上·下衣의 系列別 配色

하의 \ 상의	靑	백	계
靑	4	0	4
황	30	4	34
계	34	4	38

3) 繪畫에 나타난 女服의 配色

가. 風俗畫의 女服 上·下衣 配色

해원 풍속화에는 당시의 女服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 유채색 服色을 많이 볼 수 있는 11점<sup>28)</sup>을 조사하였다. 그림의 女服은 총 24벌로,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退色하여 정확한 색상 파악이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sup>29)</sup>를 바탕으로 색채를 살펴보고, 이를 五行色別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靑-白 系列의 배색이 가장 많았다.

〈표 3-4〉 風俗畫에 나타난 上·下衣 系列別 配色

하의 \ 상의	靑	적	황	백	계
靑	3	1	2	15	21
적	1	0	1	0	2
흑	0	0	0	1	1
계	4	1	3	16	24



(그림 3) 深溪遊沐圖 (부분) (간송미술관 소장)

나. 記錄畫의 女服 配色

기록화는 주로 궁중에서 배틀어진 연회 장면 등을 그린 것으로 그 중 女服의 색이 비교적 뚜렷한 4점<sup>30)</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5〉는 그림의 女服 配色을 五方色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赤-靑色 下衣에 黃色 上衣 配色이 가장 많았고, 赤-靑, 黃-白, 靑-靑 등의 配色도 눈에 띄었다.

〈표 3-5〉 記錄畫의 上·下衣 系列別 配色

하의 \ 상의	靑	적	황	계
靑	6	1	9	16
적	7	0	9	16
황	3	1	0	4
백	0	0	6	6
계	16	2	24	42

27) 김정진. 前揭書. p.51.

28) 深溪遊沐圖, 年少踏靑圖, 野宴圖, 月下情人圖, 美人圖, 雙劍對舞, 聽琴賞蓮, 月夜密會圖, 舟遊清江, 連塘의 女人, 전모쓴 여인

29) 박경자. 〈해원풍속화에서 본 18세기의 일반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30) 中朝朝書筵官賜宴圖, 戶曹郎官契會圖, 宣祖朝峇英會圖, 南池耆老圖

## 2. 안감과 겉감의 配色

조선말기 궁중발기와 가례기록에는 당시 쓰였던 옷감의 안감과 겉감색이 나타나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sup>31)</sup>를 참고로 가례와 정례기록에 나타난 구분이 가능한 항목들을 따로 정리하였다.

### 1) 저고리와 치마의 안과 겉 配色

저고리는 초록이 가장 많은데 이는 당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저고리 안·겉의 配色을 系列別로 정리하면 靑-赤 配色이 두드러졌으나 靑-靑, 赤-赤의 同一系列 配色도 많았다. (<표 4-1>) 치마 안·겉에는 靑色系列이 가장 많아 이를 系列別로 정리하면 <표 4-2>와 같이, 靑色과 赤色系列에서 모두 안감으로 白色이 많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표 4-1> 저고리 안과 겉 配色

겉\안	靑	적	황	백	계
靑	11	39	5	6	61
적	1	5	0	2	8
계	12	44	5	8	69

<표 4-2> 치마 안과 겉 配色

겉\안	靑	적	황	백	계
靑	10	5	2	17	34
적	2	5	0	8	15
황	0	2	0	0	2
백	2	0	0	0	2
계	14	12	2	25	53

### 3) 禮服의 안과 겉 配色

朝鮮時代 여자 예복으로는 적의, 노의, 원삼, 활옷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안·겉의 색이 나타난 것

은 <표 4-3>과 같이 조사되어 이를 통해 赤-赤, 靑-靑, 靑-紅, 黃-紅의 配色을 볼 수 있다.

<표 4-3> 예복의 안과 겉 配色

의복	분류	착용자	안	겉
적의	왕비		대홍	대홍
	왕세자빈		아청	남
	황태자비		심청	대홍
노의	왕비		대홍	대홍
	왕세자빈		대홍	남
	황태자비		대홍	대홍
장삼	왕비		대홍	대홍
	왕세자빈		대홍	남
원삼	황후		황	홍
	빈궁, 공·옹주		초록	목홍
	왕비		홍	황
	내명부		자적	홍
활옷	공주, 옹주		홍	청
	비모		아청	남, 아청

## 3. 색동의 配色

색동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이 이어지면서 고유 색채관에 입각해 북식미에 일조하고 있는데, 朝鮮時代에는 색동이 주로 아동 의복이나 무용복 원삼의 소매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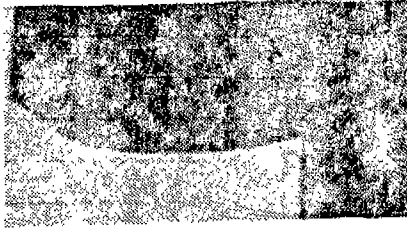
### 1) 일상복의 색동 配色

일상복으로는 석 주선 박물관과 덕수궁에 소장된 두투마기 2점, 마고자 1점, 배자 1점의 색동배열을 조사하였다. 색동의 配色을 한 주기 안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색의 빈도로 나타내면, 靑色-赤色, 赤色-黃色, 黃色-赤色の 순을 보인다.

31) 고복남, <한국 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1986.

〈표 5〉 색동의 주변색

주변색	청	적	황
청		7	1
적			5
황			



(그림 4) 색동마고자 소매부분(석주선 박을관 소장)

2) 원삼과 활옷의 색동

원삼과 활옷 소매에는 촘색의 색동이 달려 있는데, 그 색채는 길의 색에 따라 공통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대상<sup>32)</sup> 중 특히 녹원삼의 길(綠)-紅-黃-白의 색동 配色과, 활옷의 길(紅)-黃-靑-紅-白의 색동 配色 등이 두드러졌다.

4. 巫神圖의 配色

巫神圖는 巫俗의 場인 神堂 벽에 걸려있는 巫神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日常服에 비해 상징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리라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현존 巫神圖의 女服 配色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무신도’<sup>33)</sup>와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무신도’<sup>34)</sup>에 실려있는 朝鮮時代 巫神圖 중 女服이 나타난 18점에서 25벌의 上·下衣 配色를 系列別로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표 6〉에서는 黃-靑을 비롯 赤-靑, 白-靑, 黃-赤 등의 配色 등을 볼 수 있다.

〈표 6〉 巫神圖 服色의 系列別 配色

하의 \ 상의	청	적	황	백	계
청	1	6	5	3	15
적	5	0	4	0	9
백	1	0	0	0	1
계	7	6	9	3	25



(그림 5) 大神할머니 (출처-한국무신도)

5. 舞踊服의 配色

무용은 고대 제천의식에서부터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우리 민족은 옛부터 멋과 풍류를 아는 민족으로 알려져왔다. 朝鮮時代는 궁중무용의 전성기로 말기까지 총 55종의 정재가 추어졌었으며, 민속무로 巫舞, 農樂舞, 寺刹舞, 妓房舞 등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며 이어져왔다.<sup>35)</sup>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sup>36)</sup>를 참고로 進饌儀軌와

32) 녹원삼-고려대 소장, 이화여대 소장, 단국대 소장, 이 단하 부인, 덕은 공주, 흥원삼-동궁비, 영왕비, 자적원삼-광화당, 황원삼-황후, 청원삼-단국대소장, 홍활옷-덕은 공주, 창덕궁 소장, 단국대 소장 등  
 33) 김태곤 편. 〈한국무신도〉 열화당. 1989.  
 34) 윤열수 편.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무신도〉 이가책. 1994.  
 35) 김은경. 〈한국민속무용연구〉 형설출판사. 1982. pp.48~49.  
 36) 유송옥. 〈조선왕조궁중의례복식〉 수학사. 1991.  
 37) 최선미. 〈조선조 궁중정재 복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표 7〉 舞踊服飾의 配色

무용	의복	상의(上衣)		하의 (下衣)
		안	겉	
처용무		홍	남	황
		남	홍	황
		남	황	황
		홍	백	황
		홍	흑	황
춘앵전무		홍	황	홍
연화대무		홍	녹	홍
검기무		홍	청	
동기			녹	홍
여령			황	홍

樂學軌範, 女妓服飾圖說 등을 통해 무용복식의 配色을 알아보았다. 〈표 7〉에서는 上衣의 안-겉에는 赤-靑, 黃-靑, 赤-白 配色이, 上·下衣에서는 黃-赤, 靑-赤 등의 配色이 나타났다.

#### IV. 服飾의 配色에 나타난 象徴性

朝鮮時代의 服色은 민족 고유의 가치관과 儒, 佛, 仙 등 외래종교의 가치관이 융합하여 형성된 색채관에 의해 독특한 의미를 지녔으며, 이를 陰陽五行思想과 太一思想 등의 상징성에 따른 개념을 바탕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靑-赤의 配色

본래 陰陽이란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색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赤은 陽이요, 靑은 陰이라 하였다. 服色에서도 靑과 赤은 각기 陰과 陽을 뜻하여 같은 의복의 안팎이나 上·下衣의 服色으로 쓰여서 調和를 꾀하는 경우가 많았다. 朝鮮時代에 흔례복이었던 활옷 안-겉의 靑-赤의 配色은 二姓之合을 뜻하는 것으로 陰과 陽이 하나가 되어

화합과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陰인 女子가 陽의 색인 赤色을 겉으로 하여 입는 것 역시 陰陽의 調和를 상징적으로 추구했던 한 예이다.

靑-赤은 五行으로도 木生火하여 靑이 赤으로 化하는 相生 配色이다. 주로 吉服이나 巫服에서 사용되어 화합과 발전을 상징하였으며, 무속에서는 靑·赤 모두 鬼神을 쫓는 辟邪의 색으로 원기가 왕성한 길한 색이라 여겨 靑-赤의 配色을 애용하였다.

朝鮮時代 靑-赤 配色의 예로는 宮女服과 儀軌圖의 內人 上·下衣, 가례와 궁중발기 기록의 저고리 안·겉감, 예복 안·겉감, 무신도의 上·下衣, 색동의 인접색, 무용복의 안·겉, 上·下衣 配色 등이 있다.

##### 2. 赤-黃의 配色

陰陽象徴의인 측면에 있어서 赤은 陽이며, 黃은 中性으로 黃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陽인 赤에 비해서는 陰的인 면을 띠면서 赤과 調和를 이룬다. 赤과 黃은 五行上으로는 火生土하여 相生하는 關係로, 중앙을 상징하는 이상적 색채인 黃色에 대한 당시의 동경을 감안할 때 두 색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黃色의 氣가 강해지고 相生되는 긍정적인 색채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민속에서는 흙색을 이용해 강조할 때 赤과 黃이 혼용되는 면을 보이는데, 이 때는 두 색 모두 귀신을 쫓는 辟邪의 의미로 신성하게 사용되었다.

赤-黃의 配色은 궁녀의 일상복 上·下衣, 巫服과 巫神圖의 上·下衣, 색동의 주변색, 무용복 上·下衣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 3. 黃-白의 配色

黃-白 配色은 陰陽上 中性인 黃과 陰인 白이 調和를 이루니 상대적으로 黃은 陽을, 白은 陰을 뜻하여 화합하게되며, 五行으로는 土生金하여 土인 黃이 化하여 金인 白이 되는 相生關係이다. 따

라서 원삼이나 활옷의 黃色 색동 끝에 흰 한삼을 달아서 가을의 상징을 더욱 강조해 풍요로운 결실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무속에 있어서도 黃色은 신성한 색이었으며, 흰색은 외래의 색채관에도 불구하고 고대 왕들의 탄생신화에서 보듯 태양빛을 상징하여 우리 민족이 선호하고 숭상한 색이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는 白色이 여러번 금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黃-白 配色의 사용은 相生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아서 원삼과 활옷의 소매 끝 정도에서가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들다.

#### 4. 白-黑의 配色

黑色과 白色은 모두 喪服의 색으로 주로 사용되어오던 색채이며, 黑은 특히 만물이 위축되는 겨울의 상징색으로 朝鮮時代 女服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白-黑은 五行上 金生水하여 相生되는 關係지만 기록이나 그림 등의 女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黑色 系統이라 할 수 있는 회색 치마에 흰저고리 등을 착용한 것이 풍속화에 보이며, 남자의 심의에서도 白-黑 配色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白-黑 配色 역시 비록 사용 횟수는 많지 않지만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相生과 陰陽調和의 의미를 내포하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黑-靑의 配色

黑-靑은 陰陽에서 상대적으로 陰인 黑에 대해 陽인 靑이 調和를 이루는 配色이며, 五行에서는 水生木으로 黑-水가 靑-木으로 화하는 相生關係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喪服의 색이라 하여 黑色을 기피해 기록에서는 黑-靑 配色을 찾기가 힘들고 단지 궁중에서 黑色 대신 鴉靑色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아 鴉靑-靑의 配色이 이를 대신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天地玄黃의 개념에서 비롯되어 地色인 黃에 대응하는 색이 天色인 玄이었으므로 玄

色은 왕의 제복인 국 · · · 쓰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적의 등 예복의 안·겉에 사용되었던 鴉靑-靑의 配色은 天色인 玄을 대신해 鴉靑을 사용하고 안에는 靑色系列인 藍을 사용하여 易과 五行의 만족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 6. 白-靑의 配色

白과 靑은 각기 西-金과 東-木을 象徵해 金인 白이 木인 靑을 剋하는 相克配色이다.

朝鮮時代 白-靑 配色은 치마의 안·겉, 무신드, 궁녀 및 일반여인의 일상복에서 볼 수 있는 남치마·흰저고리 등이 있다. 치마의 안·겉을 각각 靑과 白으로 했던 것은 옛부터 대개 上衣과 下衣가 각각 陰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上衣의 경우는 相生配色을, 下衣의 경우는 相剋配色을 사용해 上·下衣의 陰陽을 調和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 宮女나 女人의 日常服으로 남치마에 흰저고리를 많이 착용하였던 것은 下衣에는 靑色系列인 藍色으로 어두움을, 上衣에는 白色으로 밝음과 신성함을 象徵하여 調和를 이루었다.

#### 7. 白-赤의 配色

白-赤은 五行上 火剋金하여 赤이 白을 剋하는 關係이다. 白-赤 配色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각기 색을 선명해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配色이지만 朝鮮時代에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징적인 의의에서 相剋配色인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생각된다.

赤-白 配色은 치마의 안·겉감, 색동의 주변색, 巫服에서의 配色 등에 쓰였다. 치마의 안·겉에서 白色은 청결성 때문에 안감에 사용되는 동시에 陽인 上衣의 相生 위주의 안·겉 配色에 비해 상대적으로 相剋 配色으로 사용되었다. 또, 활옷의 赤色 색동끝에 달린 白汗衫이나 巫服 配色에서 白色은 각 色間의 시각적인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며, 신성함과 辟邪의 의미를 赤色과 함께 상징하

였던 것이다.

## 8. 靑-黃의 配色

靑은 五行上 東-木, 黃은 中央-土로 木剋土하니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 相剋하는 關係지만 巫俗에서는 靑과 黃 모두를 吉色으로 여겨서 赤과 함께 辟邪나 儀式에 사용하였다.

一例로 가례도감의례의 黃色下衣와 靑色上衣는 행사성격상 의례적인 면을 중시한 服色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착용한 上衣가 대개 靑色系列로 길이가 평상시의 저고리들보다 긴 것이 많았던 점, 또 醫女의 착용비율이 높았던 점, 黃色은 사용이 금지된 색이었기 때문에 유사색인 松花色 등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正色이 아닌 間色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相剋配色으로 신분상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朝鮮時代에는 赤色이 禁制의 대상이었던 시기가 많았기에 一般人이나 內人層의 服色은 儀禮時에 이를 피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기록화와 무속의 靑-黃 上·下衣는 間色의 사용 등으로 陰陽 調和를 이루는 동시에 辟邪色으로 무속적 상징도 만족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五行上의 關係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9. 靑-靑의 配色

靑色은 朝鮮時代에 특히 애용된 색으로, 類似配色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 間色인 綠과 正色인 靑이나 藍 등을 이용한 配色이 두드러져서 궁녀복 上·下衣, 가례도감의례의 내인 上·下衣, 기록화의 上·下衣 등의 예가 있다.

이렇게 靑-靑의 配色이 폭넓게 사용된 것은 靑色이 東方인 朝鮮을 상징하였던 관계로 직접 금제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으며 염색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또 靑-靑 유사색 配色이 陰陽五行上으로도 무속적인 상징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개 靑-綠의 配色이 많았던만큼 이러한 配色

에 있어서는 間色인 綠色이 正色인 靑色과 어울려 靑色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주었던 것이다.

## 10. 赤-赤의 配色

赤-赤 配色은 같은 유사색의 配色이지만 靑-靑의 配色에 비해 그 예가 적은데, 이는 赤色이 靑色에 비해 사용폭이 좁았던 것에 한 원인이 있다.

朝鮮時代 赤-赤 配色의 예로는 上衣와 下衣의 안·겉 및 禮服의 안·겉 등이 있다. 이 중 上衣와 下衣의 안·겉 配色은 赤-靑 配色에 비해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당시에는 상징성에 근거해 配色 調和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그러나 당시에 赤色 자체는 여러 가지로 길한 색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赤-赤의 類似色이나 同一色 配色이 사용되었으며, 女服에서는 陰陽의 調和를 꾀하려는 한 방편이었다.

특히 禮服의 안·겉에서 赤-赤 配色이 두드러지는 것은 陰陽上 陰인 女子에게 陰氣를 보충해 調和한다는 뜻에서 안·겉을 모두 赤으로하는 동시에 陽의 赤色이 禮服 착용시 靑色系列 下衣와 함께 또 하나의 陰陽五行 調和를 이루었던 것이다.

## V. 結 論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유교사회였지만 그 내부에는 불교와 도교, 민속신앙까지 공존하면서 다방면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陰陽五行說과 太一思想에 근거한 색채 상징이 服色에도 크게 작용하였으며, 여기에 고유의 민속적 색채관까지 어우러져 우리 민족은 독특한 服色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 服色에 나타난 配色의 상징성을 연구해 당시의 가치관과 생활상을 유추해보고 服色에까지 우주의 진리를 담고자 했던 조상의 슬기를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색채의 상징성을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女服 配色을 항목별로 분류해 五方色系列로 나누어 고찰함

으로써 朝鮮時代 服色 調和의 이해를 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朝鮮時代 服色은 陰陽五行과 太一思想 民俗信仰의 색채관 등에 의거해 철학적으로 다양한 상징을 지녔다.

2. 上·下衣 配色은 赤-靑, 白-靑을 비롯 靑-靑, 靑-黃 등이 쓰였다.

3. 袷과 안 配色에는 赤-靑과 白-靑, 白-赤을 사용했으며 禮服은 赤-赤의 경우도 있었다.

4. 巫服에는 赤-靑, 靑-黃, 靑-靑 配色이 많았다.

5. 색동은 類似色의 인접을 피하면서 녹색삼의 경우 靑-紅-黃-白의 配色이 뚜렷했다.

6. 舞踊服에는 赤-靑, 黃-赤 配色이 많았다.

7. 공통적으로 赤-靑 配色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외 赤-黃, 白-靑 配色도 애용되었다.

8. 配色은 주로 相生配色과 類似配色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白-靑은 相剋配色이지만 辟邪의 意義와 美的 感覺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애용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朝鮮時代의 服色 配色은 미적, 사상적,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단순한 시각적 색채 配色의 차원을 넘어, 수많은 상징성을 그 안에 담아 만물의 調和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실물 보다는 그림이나 책 등의 자료에 의존해 조사했으며, 대상이 女服으로 한정되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사상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 配色 연구가 심도깊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고복남. 한국 전통복식사 연구. 일조각. 1986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 김성대. 조선시대의 색채의 낱말밭에 대하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77
- 김양희.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배색 연구. 중
- 앙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영숙.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1992
- 김은경. 한국민속무용연구. 형설출판사. 1982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1987
- 김정진. 조선시대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반차도의 구조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김태곤. 한국 무신도. 열화당. 1989
- 박경자. 해원풍속화에서 본 18세기 일반 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1982
- 손경자, 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교문사. 1982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81
- 유송옥.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학사. 1991
- 윤열수 편.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무신도. 이가책. 1994
- 원미량. 청색을 통해본 중국 개념색의 문제. 공간 제102호. 1975
- 이명희. 한민족의 백의 풍습에 영향을 준 동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임동권. 한국민속학 논고. 집문당. 1971
-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조형논총 3. 1983
- 최선미. 조선조 궁중정제 복식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한규성. 역학원리 강화. 동방문화. 1992
- 戶川芳郎, 蜂屋那夫, 溝口雄三 공저. 조 성을, 이동철 역. 유교사. 이론과 실천사. 1990
- 論語
- 呂氏春秋
- 淮南子

### ABSTRACT

The Confucianism, the Taoism, the Buddhism and the Folk-Faith actually coexisted and

all of them had also widespread influence on the Chosun Society. This thesis is designed to study symbol of Color Scheme expressed in the clothing of Chosun dynasty.

For this thesis I examined records of Royal archives, books containing lifestyle of Chosun dynasty, genre paintings, documentary paintings, exorcist clothing and existing remains. And I synthetically studied symbol of the Clothing Color Schemes in Chosun dynasty on the bases of theoretical researches.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re were many cases of

1. Upper · lowergarments : Red-Blue, White-Blue, Blue-Blue, Blue-Yellow Color Schemes.
2. Inside · outside of clothing : Red-Blue, White-Blue, White-Red Color Schemes.
3. Exorcist clothing : Red-Red, Blue-Yellow, Blue-Blue Color Schemes.

4. Multy-colored stripes : Same color arrangements were avoided in Color Schemes. In the case of Green Wonsam, Blue-Red-Yellow-White Clothing Color Scheme was obvious.

5. Dance wear : Red-Blue, Yellow-Red Color Schemes.

Generally more than anything else Blue-red Clothing Color Scheme was widely used. Besides Blue-Red Color Scheme, there were also many cases of Red-Yellow, White-Blue Clothing Color Schemes. As a whole, compatible Color Schemes were more often used than incompatible Color Schemes. In conclusion, the Clothing Color Schemes were used with various symbols that were based on color concept of Yin-Yang O-haeng, Tae-il theory, Folk-Faith and so forth in Chosun dynasty.